



함평 골프고 출신 '골프지존' 신지애가 17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신지애 상징 조형물 제막식'에 참가해 자신의 기념비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체력보강 비거리 늘려 '올해의 선수' 꼭 되겠다”

### 신지애 인터뷰

“오늘의 뜻깊은 순간을 깊이 간직해 내년 시즌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올 시즌에 놓쳐버린 '올해의 선수' 목표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7일 함평엑스포 공원에서 열린 자신의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골프지존 신지애가 다부진 표정으로 내년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연말까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신지애는 “시간이 가면 그냥 쉬고 싶다. 예전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즐겨들으며 피곤을 풀기도 했는데 요즘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다양한 음악을 듣는다”면서 “특별한 취미생활은 사실상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지애와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고향팬들에게 인사 한마디.

▲ 안녕하세요. 신지애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로 미국 LPGA 투어에 전념하다보니 고향에 자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고향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볼 수 없지만 제 마음은 늘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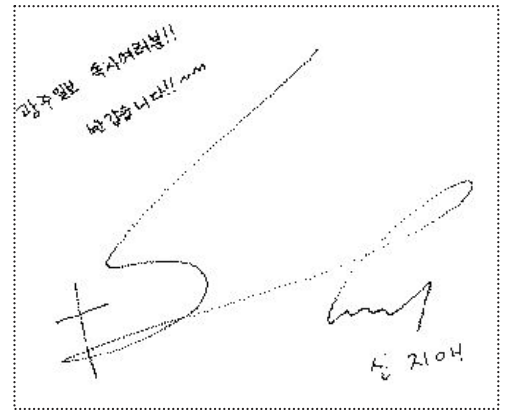
- 이미 내년 목표를 '올해의 선수'로 정했는데 내년 시즌 목표와 각오는 어떤지, 그리고 선수를 떠나 인간 신지애로서 새해에 이루고 싶은 꿈이 어떤지?

### 인간 신지애로 사랑받고 싶어

▲ 올해 처음 목표는 신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투어 마지막까지 올해의 선수상을 로레나 오초아랑 경쟁해서 아깝게 놓친게 서운하기는 하지만 올해 목표는 초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올해의 선수상으로 세웠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골프 선수가 아닌 신지애로서는 성적보다는 인간 신지애로 기억되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 다승왕 2연패를 목표로 한다면 몇 승이면 가능할까.

▲ 저는 매년 시즌 시작될 때마다 '올해는 몇 승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매년 목표는 1승입니다. 왜냐하면 2승은 1승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1승을 목표로 세우고 나서 1승을 달성하면, 또



1승을 목표로 세웁니다.  
 - 겨울휴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그리고 체력보충을 위해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 매경기 매실 마시며 피로회복

▲ 올 겨울을 통해서 보강할 부분은 첫째 체력입니다.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체력과 근력을 키워서 근력으로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는데 목표를 두고 연습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겨울에 체력훈련을 하지 않고, 유연성과 균형 위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투어 후반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체력훈련에 힘을 기울이고, 체력 보충을 위해서는 홍삼과 마늘 엑기스를 먹습니다. 그리고 피로회복을 위해서 매실을 경기 때마다 마시고 있습니다.

- 본격적인 외국생활 첫 해였던 만큼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혹시 문화적으로 당황했거나 색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놀랐던 경험은 있는지?

▲ 글썽요. 크게 문화적인 차이로 당황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진심으로 대하고 웃음으로 대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단지 한국투어와 달리 이동거리가 많고 (보통 경기 끝난 당일 자동차로 10시간 이상씩 운전하고 이동), 매주 경기가 있어서 휴식은 물론이고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 동생 지원양의 서울대 합격 소식을 접했을때 느낌과 선물은 어떤 것으로 준비했는지.

▲ 동생의 서울대 합격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고, 한해 고생했던 것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나 언니인 제가 주로 외국생활하다보니 잘 챙겨주지 못하였는데도,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고, 인정받는 학교에 합격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물 선택권은 동생에게 주었는데 아직은 답이 없네요.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함평의 영웅이 돌아왔다

## '지존' 신지애 조형물 제막식 참석... 200여군민 열광

## 아버지·여동생과 함께... 영광 어머니 묘소도 찾아

'전라도의 딸'이자 '골프지존'인 그녀가 1년만에 다시 금의환향했다.  
 함평골프고 출신으로 올 LPGA 최연소 신인왕·상금왕·다승왕 등 3관왕을 거머쥔 신지애(21·미래에셋). 그녀가 17일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신지애 선수 상징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했다.  
 노란색 점퍼·검정 바지 차림의 신지애는 이날 200여명의 군민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으며 식장에 들어섰다. 이날 행사에는 신지애 아버지 신재삼씨와 서울대 수시에서 물리천문학과에 합격한 동생 지원(경기고 신갈고)양도 함께 참석해 주위의 뜨거운 축하세례를 받기도 했다.

이석형 함평군수를 비롯한 지역인사들과 군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묘연한 하얀 천을 걷어내 조형물의 형태가 드러나는 제막식에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지애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뜻깊은 날이다”면서 “어제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또 신지애는 “사실 내가 함평내비축제 홍보대사인데 함평에 무척 오랜만에 오게 됐다”며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깊이 간직해 내년 시즌에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빨간 모자를 쓰고 언니처럼 시종 밝은 표정을 짓고 있던 지원양은 “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행사 참가 소감을 밝히면서 “나도 언니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실력자가 되도록 학업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동항교초 박담비(5년)양은 “지애 언니를 직접 보게 돼 기쁘고 힘이 난다”면서 “오늘 받은 사인물은 책상 앞에 두고 매일 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다”며 기쁨을 토했다.  
 가로 270cm, 너비 150cm, 높이 270cm 규격의 기념비는 조각가 이진용씨가 화강석 등으로 골판제 등을 형상화해 만들었으며 청동으로 제작한 신 선수의 흉상이 주요 경력과 함께 새겨졌다.

이날 행사를 마친 신지애는 바로 고향 영광으로 향해 어머니 묘소를 찾아 성묘한 뒤 상경했다. 연말까지 충분한 휴식을 갖고 내년 1월3일 호주 골프코스트로 6주간의 동계훈련을 떠날 계획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날쌔돌이 이용규 “내년엔 40도루”

### 연봉 1천만원 인상된 1억6천만원에 재계약

프로야구 무대의 '야마리'가 돌아온다. KIA 타이거즈의 이용규가 17일 1억6천만원에 재계약 도장을 찍었다.  
 개막 직후 복사뼈 골절 부상을 당해 50경기에 출장하는데 그쳤지만 복귀 후 외야를 지키며 우승 행보에 힘을 보탠 점과 WBC에서 맹활약하며 소속팀의 명예를 높인 점 등을 인정받아 1억5천만원에서 1천만원(6.7%) 인상했다.  
 이용규는 “올 시즌 부상 등으로 WBC때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올 겨울 준비를 잘해 자존심 회복에 나섰겠다”고 밝혔다.  
 수술한 발목 부위가 좋지 않아 포항캠프 대신 재활군에 머물고 있지만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만큼 내년 시즌 준비는 이상 무다.  
 이용규는 “해마다 발전을 하고 변신을

해야 프로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타격시 옹크리고 치는 스타일인데 이런 폼과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망이도 33인치에서 33과 2분의1인치로 늘릴 생각이다. 지난 시즌 이후 웨이트에 공을 들였던 이용규의 '정타력' 업그레이드 계획의 일환이다.  
 장타력만큼 욕심을 부리는 것은 도루. '날쌔돌이' 이용규는 아직 한 시즌에 40도루를 기록한 적이 없다. 2006년 38개의 도루가 최고 기록인 이용규는 내년 시즌 40도루에 도전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즌이었지만 12년만의 우승으로 2009년은 특별하다.  
 이용규는 “매번 팀이 우승후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자꾸 승리를 하면서 자기가 못해도 누군가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팀이 더 강해졌고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

다”고 말했다.  
 이용규는 또 “한국시리즈 7차전은 너무 중요한 경기였는데 여러차례 찾아온 기회를 한 번도 살리지 못했다”며 “동료들 얼굴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을 졸였던 만큼 우승의 기쁨이 더 컸다”고 밝혔다.  
 화제가 됐던 이종범과의 '눈물의 포옹'에 대해서는 “그날 플레이가 너무 안좋아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부상으로 교체됐던 이종범 선배가 그런 내 모습을 보셨던 것 같다”며 “경기가 끝나고 이종범 선배가 다가와 안아 주셨는데 울려서 많이 울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용규의 프로야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또 가장 황홀했던 순간도 모두 2009년에 담겨있다.  
 안타와 도루 하나당 2만원을 적립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있는 이용규는 더 큰 사랑을 위해 2010년을 겨냥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지애는 17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신지애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마친 후 고향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골프 꿈나무들과 군민들에게 직접 사인을 해주었다. /최현배기자 choi@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it.com

본점 062-227-9940

충정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여산점 063-851-2422